

하린아빠의 세움과 지움

<http://liara62.egloos.com>

by 하린아빠



래프팅의 리더십 1

래프팅의 리더십

“내 고향은 경상도라예.”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다. 서문유치원, 수창국민학교, 계성중학교, 그리고 뽕뽕이를 돌려 들어간 달성고등학교를 끝으로 나는 대구를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지금까지 유랑하며 살고 있다. 지금은 자란 곳 대구에서 보다 떠나 온 곳에서 더 많이 산 셈이다. 입학식때 교련 선생이 무식하게 하던 말이 생각난다.

“대고(대구고)에서는 되고 보고, 경고(경북고)에서는 겪어보고, 달고에서는 (대학뺏지를) 달고본다.”

나의 본적은 대구시에서도 한 가운데 중구이다. 대구는 팔공산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비슬산까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다. 분지(盆地)다. 닫힌 땅이다. 이열치열(以熱治熱). 나는 이런 옹팡진 땅이 품어 대는 열기에 바람이 불지 않는 더운 날씨를 좋아했다. 겨울 체육복을 꺼입고 싸돌아다니면서 한심한 듯 보는 시선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반바지를 입으면 답답하다. 긴소매, 긴바지의 체육복을 여름에 걸쳐 입으면 발산된 땀이 증발되며 축축해지는 그 서늘한 느낌을 즐기며 한 여름을 정면으로 받아 들였다.

나는 발이 덥다. 몸의 열이 몸 끝으로 잘 빠져나간다. 몸에 열이 많아 이불을 덮지 않고 자도 배탈이 나지 않는 난로형 체질이다. 끌어 안으면 후끈한 난로 말이다. 몽골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뜨겁다. 한 겨울에도 뜨근뜨근하다.

그랬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마르는 것을 느낀다. 어머님이 생전에 머리말에 큰 사발에 냉수를 담아놓고 주무시다가 한 밤중에 일어나 먼지가 자욱이 앉은 사발을 벌컥 벌컥 들이키는 실루엣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꼴이다. 신 새벽에 입안이 마르면 냉장고를 찾아 냉수를 들이키곤 한다. 이제는 몸이 바뀐 것이다. 소년은 쉽게 늙는다(少年易老).

더운 여름이면 누구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런지 래프팅을 즐기는 도시 유목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래프팅을 하며 물을 뒤집어쓰면서 마냥 즐거워한다.

하린이의 친구 제이콥네가 사는 콜로라도주의 포트 콜린스를 지나면서 록키산맥의 작은 하천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때는 무서워 보이기도 해서 시도해 볼 엄두도 못냈다. 리노의 카지로로 가면서 캘리포니아의 끝자락에 있는 타호 호수(Lake Tahoe)의 지류에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

<http://liara62.egloos.com/480525>

보면서도 소 닭구경하듯 했다. 우리 가족은 한번도 래프트(raft, 뗏목이란 뜻) 아니 보트를 타고 급류타기에 나서보지 못했다.

내 주변에서는 동강 래프팅에 갔다 왔다는니, 인제 내린천의 래프팅 코스가 가장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내 가는 세반고리관에도 걸려 흔들거리게 되었다. 세상사 첫 경험이 그러하듯이 어쨌든 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 이번 여름에 나의 인생 한담 파트너인 전선배를 따라 한탄강 래프팅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분이 아는 철원목동과 젓소부인이 나도 철원으로 초대했던 것이다.

생전 처음 해보는 래프팅은 무척 재미있었다. 조교는 보트위에 서서 뒤로 벌러덩 자빠져 풍덩하는 통과리레로 물에 젖지 않으려는 마음을 앗아갔다. 이윽고 보트는 울퉁불퉁 바위투성이로 그득한 급류를 헤쳐나갔다. 때로는 노질(rowing)이 필요없는 물살에 주악 미끄러지듯 흘러가기도 하였다. 보트에 탄 팀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노를 젓고 헤쳐나가는 즐거움에 온 몸은 흠뻑 젖었다. 함께 팀웍을 발휘하기도 하고 나 홀로 알아서 하는 이타심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튀는 물살을 맞으며 환호작약했다. 그리고 종착지 나른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정 리더십 대 래프팅 리더십

조정(선상) 리더십은 정착민의 리더십이다. 물살이 잔잔한 강이나 둘러쳐진 경기장안에서 육상 트랙 내물 길 네 물길이 정해진 코스에서 휘젓는다. 조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노질을 해대면서 1/n의 대오로 노동집약적인 효율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간다. 나의 근육과 너의 근육의 배려와 타이밍으로 집단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제외한 역경은 없다. 목표에 가는 여정에서 생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가 문제가 된다. 조정은 나의 개체의 자율보다 팀웍을 강조한다. 그리고 종속적이다. 나 자신이 판단으로 행동해서는 안되고 남에게 맞추어서 눈알을 돌려야 한다. 자신을 죽이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노를 저어야 조식이 산다. 개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군집의 목표가 우선이다.

조정 리더십은 정규 노선 버스와 같은 리더십이다. 노선버스는 허용된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요금을 받고 다닐뿐이다. 유도리가 없다. 에둘러 갈 수도 없다. 정해진 주행과 정해진 정거장에 개인은 타고 내릴 뿐이다. 신호등에 멈추어 서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법이 강제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버스의 코스나 시간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 단조롭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이고 따로 떼어내어 특별한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

<http://liara62.egloos.com/480525>

이에 반해 래프팅 리더십은 바로 유목민의 리더십이다. 래프팅은 이에 참가한 팀원들이 도착점 즉 비전에 대한 공유만 하고 물살에 따른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행한다. 무조건 생존이 우선이다. 내가 살아야 전체가 산다. 돌부리가 나오면 노로 밀치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전체 팀원이 알도록 소리쳐서 알려준다. 모두가 나안에 용해되어 발산된다. 래프팅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몇 단계에 걸친 지시와 결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아미타불이다. 각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보트는 장애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외부 환경도 조정경주의 환경에 비할 바가 아니다. 조정처럼 관람객의 환호를 즐길 여유도 없다. 조정 경주장의 앰블란스도 없다 물살은 거칠기도 하고 고분고분하게 흐른다. 속도를 낼때는 속도를 내고 느긋할 때는 물살에 몸을 싣고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흘러간다. 유목은 속도이다. 느릴때는 한없이 느리고 빠를때는 몰아달리는 것이 유목미학적 속도이다. 느리게 쌓여서 달리는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항상 빠를 수는 없다. 빨라져야 할때 빨라져야 한다. 발끝으로만 서는 사람은 오래 설수 없다.(企者不立, 老子) 래프팅 즉 기마유목민은 완유(玩遊)하다가 급주(急走)한다. 재즈의 주행이며 변주(變奏)이다.

유목은 느릴때는 느리고 몰아칠 때는 몰아치는 것이다. 누구에게 떠밀수도 없다. 물살은 시시각각 격탕치는데 “네가 해라”고 할 수가 없다. 조직의 여유도가 없다.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리더십이 모여서 큰 리더십이 발휘된다.

장자(莊子)는 즉양편(則陽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江河合水而爲大 (강하합수이위대)
작은 물과 큰 물이 합쳐서 큰 물줄기가 되고
大人合併而爲公 (대인합병이위공)
리더와 리더가 합쳐서 큰 인물이 된다

유목민의 리더십은 버스보다는 택시의 리더십이다. 택시는 일단 타고나면 손님과 기사가 목적지(vision)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모든게 위임이다. 택시기사는 자신이 주도하여 유연하게 길을 선택해 간다. 길이 막히면 U-턴도 하고 이면도로를 찾아 설렁설렁 가기도 한다. 꿩 잡는게 매다는 식으로 목적지로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코스를 엿장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간다. 골목길도 가고 대로도 간다. 노선 버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내려준다. 버스는 막히면 멈추어 서야하지만 택시는 대안을 찾는다. 샛길로 빠져도 전진이고 후퇴도 전진이다.

<http://liara62.egloos.com/480525>

유목미학은 조정은 오 노! 래프팅은 오 예스! 하는 미학이다. 재즈의 변주(變奏)요 즉흥연주이다. 유목미학은 버스가 아니라 택시의 자율이다. 구속이 없으나 행동하는 자유이다. 종속된 행동이 아니라 주도적 행동이다. 유목민은 그 자리 그 시간에 바로 알아서 결정한다. 바로 래프팅의 리더십이다.

2004/10/29

하린아빠

하린아빠의 세움과 지움

<http://liara62.egloos.com>

펴낸날 : 2004. 10. 29.

지은이 : 하린아빠

펴낸곳 : 이글루스

이 책은 지은이와 egloos.com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published by egloos.com in Seoul, Korea